

2017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시작

간호교육평가원, 자체평가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정부인정기관으로서 실시하는 3주기(2017~2021년) 간호교육 인증평가가 시작됐다.

2017년도 상반기 인증평가가 완료됐으며, 인증결과가 발표됐다. 이어 하반기 인증평가 신청서 접수가 지난 7월 14일 마감됐으며, 자체평가보고서 제출마감은 9월 21일까지다. 서면 및 현지방문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평가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017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 설명회'를 7월 19일 개최했다. 전국 간호교육기관에서 4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양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시행에 따라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간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를 준비하는 교수님들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3주기 인증평가 절차, 자체평가 준비, 6개 평가영역별 인증기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법 등에 대해 간평원 교육인증평가 위원회 박연숙 위원장과 기준개발위원회 위원들이 설명했다.

△인증절차= 3주기 인증평가 평가기간은 1~6월 및 7~12월이다. 신청접수는 매년 1월 및 7월 두 차례 받는다.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평가 결과 조정, 대학의 평가결과보고서 검토 및 의견제출, 평가결과 판정 및 승인, 평가·인증 결과 통보 등으로 진행된다.

평가인증 신청은 유휴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부터 할 수 있으

2017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진행 일정

단계	평가	시기
신청	인증평가 신청서 제출	완료
	자체평가 설명회 개최	완료
자체평가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2017년 9월 21일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2017년 10~11월
판정	평가결과 조정	2017년 11월
	대학의 평가결과보고서 검토 및 의견제출	
결과통보	평가결과 판정 및 승인	2017년 12월
	평가·인증 결과 통보	2017년 12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017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며,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간= 인증기간은 5년이다. 기존 조건부 인증을 없애는 대신 3년 인증(잔여기간 인증 없음)이 신설됐다. 한시적 인증(1년)도 신설됐으며, 연속 2회 이상 판정은 불가하다.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6개 평가영역, 14개 부문, 2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6개 영역은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로 2주기와 동일하다.

3주기 인증기준은 지속적·주기적인 성과관리, 성과기반 교육과정 질 관리 강화, 임상실습 관

련 기준 개선 및 구체화, 임상실습 시 학생 안전관리 기준 신설, 학생 인성교육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간호실무의 윤리와 관련된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교과목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인성향양을 목적으로 교과목 등을 운영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원거리 실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간평원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실습 표준'이 소개됐다. '핵심기본간호슬리프' 준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간호교육인증평가 정보시스템' 활용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간평원은 3주기 평가부터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 신청부터 결과통보까지 전체과정을 관리한다. 평가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체평가와 관련된 주요 평가지표 항목은 매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숙 기자 ksung@koreanurse.or.kr

2017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 설명회 개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52만명

장기요양기관 경기지역에 가장 많아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52만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장기요양인정=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은 694만396명으로 이 중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84만 8829명,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인정자는 51만985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은 7.5%이다.

이를 2012년과 비교하면 노인 인구는 17.2% 증가, 신청자는 31.9% 증가, 인정자는 52.1% 증가했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인정등급별 인원= 201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1만 9850명의 등급별 인원을 보면 1등급 4만917명(7.9%), 2등급 7만 4334명(14.3%), 3등급 18만5800명(35.7%), 4등급 18만8888명(36.3%), 5등급 2만9911명(5.8%)이다.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2016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9398개였으며, 재가기관이 1만4211개(73.3%), 시설기관이 5187개(26.7%)였다. 2012년 대비 재가기관은 32.4%, 시설기관은 19.9%가 증가해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2016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52억원이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